

하얀 눈이 녹아내리고 나뭇가지에 작은 봉우리가 하나 둘 얼굴을 내미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토크 북 위크상을 가진 후 올하는 북토크 북을 계간지로 봄(3월)·여름(6월)·가을(9월)·겨울(12월)호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절의 바뀜과 함께 좀 더 질 높은 서평과 교과관련특목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호는 1,2학년 통합교과 여름과 가족 관련 도서 및 3·6·9호 특집 중 체험학습 특집 중 하나로 유적지 체험학습 관련 도서를 소개합니다.



## 유적지 관련 도서

--	--	--	--	--	--	--	--	--	--	--	--

## 통합교과서 수록도서

-1,2학년 통합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수록 도서-

\* 교사용 지도서 수록 참고 도서는 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

주제	단원	교과서 수록 도서	교사용 지도서 수록 참고 도서
여름 1-1	1. 여름이 왔어요	빨간부채 피란부채/이상고/시공주니어	<여름날씨와 생활 관련> 노란 유선/유재수/보림 낙장 반/문익중/창비 빗방울의 여행/송재찬/와이즈아이 비가 오는 날에/이혜리/보림 색깔비가 내리는 나라/이동태/꿈터 비오는 날/유리, 슬래비츠/시공주니어 야, 반디/다/이상고/보림 <배려> 배려-왕따 유정이를 잡아라/오정은/ 어린이를 위한 배려/전지은/위즈덤하우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배려/박수경 너 때문에 행복해/노지영/소담주니어 이럴 땐 고마워요하는 거야/황윤선/노란돼지 뭐가 다른데?/이상지/문원
	2. 여름 방학	할머니 어디가요? 행두 따라 간다 /조해란/보리	<여름방학 관련> 상상에서 그랬어/홍구영/보리 사계절 떠돌아다니/홍나우/갈매어린이 프란초의 방학 이야기/크리스티네, 뉘스틀링거/비룡소
여름 2-1	1. 곤충과 식물	사계절 생태놀이/홍나우/사계절	반디 각시 선물상자/유애로/보림 반딧불이다/줄리 브링클로/지영어린이 반딧불이와, 총을/박영식/행복한아이들 공작공작 반딧불이야, 동동 개종봉이야/이상배/애들베 공작해/이광영/예림당 곤충세계에서 살아남기1,2,3/코믹컴/아이세움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도감/윤주복/진선아이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키우지/고드 모텔/비룡소 보리 어린이 동물도감/남상욱/보리 손에 잡히는 과학교과서 1/상재현/갈매스쿨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곤충이야기/한영식/아이세움
	2. 여름 풍경	여름이 왔어요/원영미/휴먼어린이	
가족 1-1	1. 우리 가족	가족은 고향 안아주는 거야/박윤경/웅진주니어	돼지책/앤서니브라운/웅진주니어 우리 가족입니다./이혜란/보림 내동생 씨게 팔아요/임정자/아이세움 터널/앤서니브라운/논경 섯섯/김윤호/비룡소 우리 아홉가 최고야/앤서니 브라운/킨더랜드 조금만/단카무리 유우코/한림 우리 언니/살모트 홀로토프/사파리 고말라/앤서니 브라운/비룡소 마법의 생활 두 조각/미하엘 엔데/한글사
	2. 우리 집	만희네 집/권윤옥/갈매어린이	<집관련> 나의 행복한 하루/공영호/토트북 마음의 집/김희경/창비 우리만의 작은 집/라이드문 플트린데스/크레용하우스 모두 함께 지은 우리 집/김진수/문학동네어린이
가족 2-1	1. 친척	가족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지?/채인선/미세	삼촌과 함께 자선거 여행/채인선/재미마주 우리는 몇촌일까/문정호/아이세움 나는 아버지의 친척/남상순/사계절 우리 할아버지는 100세/민수라/모토코/아이세움 가족 나의 만들기/로렌 리디/미래아이
	2. 다양한 가족	천다 삼촌/공재원/느림보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이유진/초복우재중 형이라고 부를 자신 있니/이성자/대교 깨만 얼굴/배릿줄/생디서 새로 쓰는 가족이야기/박윤경/백엔드 우리 할아버지/이수원/산지니 인연과 소수자 이야기/박경태/책세상 따로 따로 행복하게/배릿 줄/보림 난 이제 누구랑 살지/애일린 엔데즈 아폰테/비룡소 특별한 손님/앤나레나 맥아피/백엔드 이요의 결혼식/선영경/비룡소 가족입니다/김/어린/바람의 아이들 우리 가족입니다./이혜란/보림 가족 나무 만들기/로렌 리디/미래아이 가족 당선이 고맙습니다./박성진/중앙북스 우리 가족이야기/문여림/토트북 그렇게 내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안네테 힐데브란트/트인들어린이

교과서와 함께 읽어오

- 1,2학년군 통합교과 여름 관련도서-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시간도둑과 사라진 방학(학교는 즐거워 5) (최형미 글/최해영 그림/키다리/2012)	통합 1-2학년군 여름1-1 2. 여름방학
 (이호철 사계절 동화·여름)누대 할배 산밭 참외서리 (이호철 글/장호 그림/고인돌/2012)	통합 1-2학년군 여름1-1 1. 여름이 왔어요 통합 1-2학년군 여름2-1 2. 여름풍경
 자연을 먹어요:여름 (오진희 글/백영식 그림/내 인생의 책/2013)	통합 1-2학년군 여름2-1 1. 곤충과 식물 *사계절
 누렁이의 정월 대보름 (김미혜 글/김홍모 그림/비룡소/2010)	통합 1-2학년군 여름1-1 1. 여름이 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곤충도감 (한영식 지음/진선아이/2011)	통합 1-2학년군 여름2-1 1. 곤충과 식물
 뽀빠리 여름방학 (어린이 통합교과 연구회 글/쟁쟁이 그림/상상의 집/2013)	통합 1-2학년군 여름1-1 2. 여름방학
 열두 달 자연과 만나요 (임종길 글·그림/열린어린이/2011)	통합 1-2학년군 여름2-1 2. 여름과 풍경 *사계절
 (김황용 박사가 들려주는)벌레의 비밀 (김황용 글/소복이 그림/리쟁/2011)	통합 1-2학년군 여름2-1 1. 곤충과 식물
 STEAM형 교육의 완성: 여름(1·2 학년군) : 체험학습으로 통합교과 완성하기 (초등교과체험연구회 글/윤나영 그림/책고/2013)	통합 1-2학년군 여름1-1, 2-1 전체단원
 (필레꽃 울다리)여름 이야기 (질 바글렐 글:그림/이연향 옮김/마루밭/2008)	통합 1-2학년군 여름1-1 1.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좋아 물이 좋아 (김용란 글/곽성화 그림/문학동네/2011)	통합 1-2학년군 여름1-1 2. 여름방학
 건강하게 자라요 (최윤정 글/허의정 그림/소담주니어/2012)	통합 1-2학년군 여름1-1 1. 여름이 왔어요
 더워야 썩 울었거라 (신동경 글/노경아 그림/웅진주니어/2012)	통합 1-2학년군 여름1 1. 여름이 왔어요

교과서와 함께 읽어오

- 1,2학년군 통합교과 가족 관련도서-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학년-학기-단원명 순)
 동생을 하나 더 낳겠다고요? (허은순 글/김이조 그림/보리/2013)	통합 1-2학년군 가족 1-1 1. 우리 가족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1. 친척
 우리 엄마 좋아요 (바르바라 로제 글/이옥용 옮김/담푸스/2009)	통합 1-2학년군 가족 1-1 1. 우리 가족
 촌수 박사 달한이 (유타루 글/송효정 그림/비룡소/2013)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1. 친척
 햇빛과 바람이 정겨운 집 우리 한옥 (김경화 글/홍선주 그림/문학동네/2011)	통합 1-2학년군 가족 1-1 2. 우리 집
 다들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노경실 글/김유경 그림/주니어북스/2013)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2. 다양한 가족
 함께 걷는 길 (김서정 글/한성옥 그림/웅진주니어/2010)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2. 다양한 가족
 오렌지 말 (리우쉬공 글·그림/계수나무/2012)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2. 다양한 가족
 나는 두 집에 살아요 (마리안 드 스탓 글·그림/두레아이들/2012)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2. 다양한 가족
 엘레비전이 고장났어요 (이수영 글·그림/책읽는 꿈/2012)	통합 1-2학년군 가족 1-1 1. 우리 가족
 메리와 생쥐 (비버리 도프리오 글·그림/베를록/2008)	통합 1-2학년군 가족 1-1 2. 우리 집
 우리는 몇촌일까? (문정숙 글/신정숙 그림/미세기/2011)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1. 친척
 가족백과사전 (메리호프만 글·그림/신애라 옮김/밝은미래/2010)	통합 1-2학년군 가족 1-1 전체 통합 1-2학년군 가족 2-1 전체



저자 김용철 선생님은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날마다 옛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림을 익혀 그림책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꾸는 장미들》, 《우렁각시》, 《황홀 강대》, 《갈아찌씨 손아저씨》, 《하나님의 물건을 파는 장사》, 《보에 나온 반달》 등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고향 양구에서 꼬불꼬불 오솔길을 따라 작업실을 오가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

뒤집힌 호랑이 | 김용철 | 보리 | 2012  
서울송곡초등학교 사서교사 유승희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호랑이가 참 많이 등장한다. 옛이야기 속 호랑이는 무섭고 위험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섭기 보다는 우스꽝스럽다. 「뒤집힌 호랑이」에서 등장하는 호랑이 또한 불쌍하고 가여워 안타깝기까지 하다.

여기 소금장수를 잡아먹은 짐재만 한 호랑이가 있다. 덩치만큼 큰 호랑이 뱃속에서 소금장수는 주렁주렁 달린 호랑이의 간이며 콩팥 등을 구워 이미 들어와 있던 솟장수 몽기장수, 옛장수, 나무꾼 등 많은 사람들과 배불리 나눠 먹는다. 소금장수가 기지를 발휘해 호랑이 뱃속에서 탈출하게 되고 호랑이는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다. 「뒤집힌 호랑이」도 비슷한 화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신동근 작가의 「호랑이 뱃속 잔치」(사계절), 서정호 작가의 「호랑이 뱃속 구경」(보리)도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된다. 옛이야기는 작가가 어느 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꾸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다.

다홍색 책표지와 제육처럼 뒤집어진 글자가 우선 책을 열기 전부터 시선을 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큼지막하고 익살스런 그림은 글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 구불구불한 선으로 마치 그림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역동적이다. 익살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이나 다양한 등장인물과 역할까지 세심하게 담아낸 그의 그림을 보면 활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저절로 웃기에서 들리는 듯하다. 등장하는 인물의 다양한 표정을 살피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맞춰 보는 민속화를 보는듯한 즐거움도 있다. 간이 똥똥 똥똥이 달랑달랑 허파가 대롱대롱 등 의태어의 사용은 소리 내어 읽는 재미와 우리말의 감칠맛을 느끼게 한다. 옛이야기는 구술문학으로 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일반 서민이 주인공이고, 그들에 의해서 발전했다. 호랑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빠져나올 수 있었듯이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던 서민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힘이 센 관리들을 호랑이에 빗대어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꼬불꼬불 호랑이 뱃속처럼 인생길도 그렇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풍자와 해학으로 견뎌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웃여넘기는 우리의 옛이야기이지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 옛사람의 인생처럼 소박하지만 맛깔스럽고 짙짙 짙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1. 호랑이 뱃속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살펴보기
2. 옛이야기나 민속화에 왜 호랑이가 많이 등장했을까?
3. 호랑이가 등장하는 다른 옛이야기 속 호랑이의 캐릭터를 비교해서 읽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호랑이 오누이 꽃아가는디 공작/김희경/우리교육/2014

호랑이/보리편집부/보리/2013



저자·그림 윤리버 제퍼슨은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티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는 아이들 그림책을 펴낼 때마다 좋은 평을 얻으면서 유명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작가가 받은 상으로는 'the Nestle Children's Book prize Gold Award', 'Blue Peter Book of the Year', 'the Irish Book Awards Children's Book of the Year' 등이 있다. 「마음이 아플까봐」는 작가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 큰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 나도 아이라면 이렇게 .....

(다 불어버려/윤리버 제퍼슨 글, 그림/박선하 옮김/주니어김영사)  
서울정계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영혜

“모든 일은 플로이드의 연이 나무에 걸리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렇다. 플로이드가 연날리기 놀이를 하다 그만 연이 나무에 걸리고 만다. 플로이드는 연을 내리기 위해 신발을 벗어 던진다. 그러나 아이없게도 연을 내리기위해 던진 신발마저 나무에 걸리고 만다. 당황한 플로이드는 신발을 내리기 위해 또 다른 신발 한 짝을 던진다. 그러나 그 신발마저... 이렇게 플로이드는 나무에 고양이, 사다리, 페인트통, 오리, 의자, 잠, 소방차 등을 던지기 시작한다. 연을 내리기 위해 시작된 플로이드의 행동은 이제 본연의 목적을 잃은 채 그 전에 던진 것을 내리기 위해 더욱더 크고 많은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 물건들은 마치 나무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무에 척척 달라붙고 만다. 생각 끝에 플로이드는 몸을 가지고 와 나무에 던지고 그로 인해 드디어 “뚝!” 하고 연이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현실일지 플로이드의 상상일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이의 상상일지 알 수 없다. 그저 연을 내리기 위한 아이의 귀엽고 엉뚱한 모습이 한 권의 그림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젊은 북아일랜드작가인 윤리버 제퍼슨은 신인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출판하는 그림책마다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Youtube에 윤리버 제퍼슨 자신을 소개하는 많은 동영상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모두 엉뚱하고 참으로 재밌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작가의 이런 엉뚱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아이들은 나무에 무엇인가 걸리면 일단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 저것 던져본다. 이런 아이의 행동에 착안해 어른들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물건들, 고래, 씽크대, 소방차 등도 던지는 엉뚱한 상상을 했을 것이다. 연을 내리기 위해 시작된 자신의 행동도 잊은 채 오직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 그러다 자신의 연이 떨어지니 나무에 남아있는 다른 것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연을 들고 참으로 향한다. 참으로 아이다운 단순함이다.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나무가 자석도 아닌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무에 붙는다는 발상도 재미있지만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누군가 그를 모 헬렌스의 유머감각과 존 버닝햄의 주제 의식을 가진 작가라 평한 것을 보았다. 그의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변죽이는 그의 유머감각 속에 숨은 깊은 주제 의식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마음이 아플까봐」와 같은 경우는 어른이 읽어도 그 무게감이 느껴질만큼 깊은 생각거리를 주는 책이니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1. 소방관 아저씨는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올까 옛이야기 상상해보기
2. 비슷한 자신의 경험 생각해보기
3. 나라면 연을 어떻게 내릴까 생각해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각대장 존/존 버닝햄/비룡소/1995

내 토끼 어머님?/모 헬렌스/살림어린이/2008



조선의 미래를 꿈꾼  
인재들의 학고 상견관  
(문학동네/2013)



서유견문  
(파란지판기/2014)



성인나라 역사여행  
(너머학교/2014)

### 시간관리는 언제부터 했을까?

시간을 재는 눈금 시계/김향금 글/오정택 그림/문중앙 강수/아이세움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은하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동서고금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다. 시간관리의 능력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시간관리의 필수품은 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제가 아닐 정도로 현대인에게 시계는 필수품이라 하겠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시간관리를 언제부터 하였는지, 또 왜 하게 되었는지 알려 준다. 그것은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연이 주는 것으로만 연명을 하던 시대. 그 때는 먹을거리에 따라 사는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그래서 언제 더워지는지 언제 추워지는지 알기 위해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여야 했다. 그 후 인구수가 많아진 사람들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힘이 센 남자들이 먼 길로 사냥을 떠나기도 하였는데 집에 남은 여자들은 그저 매일매일 남자들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매일 밤 달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 남자를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남자들이 사냥을 나갈 때 달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날을 약속하였고 여자들은 달의 모양을 보면서 무작정 남자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고 농작을 하기 위한 시기를 해가 뜨는 위치로 알게 되었다. 영국의 스톤헨지는 해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계절과 시기 등을 알아내고 나무 막대로 하루의 시간을 재기 시작하였다. 하늘의 별로 밤시계를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연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날씨가 흐리면 해도 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을 잃어버리기 심상이었다. 그래서 물시계를 만들었고 처음엔 누군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던 물시계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자동물시계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편리하게 시간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격루’도 자동물시계의 한 종류이다. 조선시대는 지금과 달리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자격루가 알리는 대로 성문을 여닫으며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관리하며 살았다. 여러 종류의 시계를 만들었고 초까지 나타내는 기계시계가 생긴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 시간을 글같이 여기게 되었다. 이 책은 성성한 자연의 시계에 맞추어 살던 시대부터 초단위까지 나타내는 기계시계에 맞춰 사는 현대까지의 시간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시계에 대한 역사를 쉽게 설명하며 그림과 사진을 적절히 배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시간관리의 중요성까지 알려 준다.

1. 사람들이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기
2. 원시시대에 왜 시간을 아는 것이 필요했을까 생각해보기
3. 나의 하루 계획표 만들어 보기

<b>함께 읽으면 좋은 책</b>
프랑수아의 시계/도망 발행/미래아이/2011
시간과 시계의 역사/A.G 스미스/다산어린이/2007



백란도의 비밀창자  
(문영숙 지음/문학동네)



탐정기영씨  
(도인도서관/2013)



남사당 조약배  
(도인도서관/2011)

###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바람이다 1.2/김남중/비룡소/2013)  
서울신림초등학교 사서교사 민기연

「자존심」, 「불량한 자전거 여행」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남중 작가가 「침자가 된 아이」에 이어 두 번째 역사 동화로 다가왔다. 17세기를 배경으로 한 「나는 바람이다 1.2」가 그 이야기이다. 탐정가 하멜의 조선 표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이 재미나게 덧붙여진 작품이다. 조선의 아이 해풍이는 여수 앞바다에 살고 있다. 태어나서 백리 밖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해풍이도 마을을 떠나 본 적이 없다. 해풍이의 아버지는 훌륭한 햇사랑이지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집안은 더 어려워진다. 한 마을에 산 지 3년이 지났지만 서로 가까이 얼굴조차 본 일이 없는 남한인 하멜 일행. 어느 날 다친 어머니를 짐까지 부축해 온 하멜과 작은 대수를 만나게 되지만 오해로 인해 해풍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된 해풍이는 소금 장사를 떠난다는 하멜 일행에게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해풍이는 장사도 장사지만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꼭 함께 떠나고자 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러나 몰래 그들의 배를 타는 해풍이..... 그 배는 장삿배가 아니다. 실제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일본 나가사키로 오는 도중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어 13년만에 조선에서 탈출한 인물이다. 그들의 장삿배는 바로 탈출을 위한 배였던 것이다. 하멜은 해풍이를 받아들이지만 함께 일본을 향해 떠나던 중 헤어지게 된다. 일행과 떨어져 1년여 시간을 보낸 도에촌에서의 생활, 기리시먼 연수, 기우라 무사 등과의 인연으로 또 다른 모험을 하게 되는 해풍이의 이야기를 박진감 넘치게 표현하였다. 「나는 바람이다」는 만약 하멜과 조선의 아이가 함께 탐험을 하게 되어, 조선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범선 코리아나를 타고 여수에서 나가사키까지 직접 건넌가 취재해 이기도 하고, 지금도 존재하는 일본의 외국 관문인 인공 성 대지마에서 옛 시절의 흔적을 찾아 기록하며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밀고 당김이 긴장감을 높출 수 없게 하고, 있었을 법한 해풍이의 모험이 독자에게 흥미와 재미를 선사한다. 2권의 책이지만 단숨에 읽히는 글맛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교류는 경쟁의 다른 말이다. 먼저 출발한 자가 나중에 출발한 자가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경쟁에서 조선과 일본의 쇠국은 포기를 뗐다.”(2권 85페이지)

1. 하멜이 조선에 머물던 시대의 우리나라 상황 조사해보기
2. 일본의 인공성 대지마와 히라도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

<b>함께 읽으면 좋은 책</b>
하멜 아저씨 따라 조선 구경하기/김경화/기탄/2003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에서 우리문화 찾기/배유안/책과함께 어린이/2006

**북토크는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7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수여름호(10호)는 6월에 발간됩니다.